

요엘서와 라오디게아적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 제사십삼호

Jeff Pippenger
2026-02-09

제43번

여든 명의 인간 제사장들과 신적 대제사장의 결합을 상징하는 수는 '81'이며, 바로 그 '81'에서 우리는 Early Writings라는 책에 나오는 밀러의 꿈을 발견한다. 요한계시록 '81'에서는 최후의 봉인이 떼어질 때 하늘에 반 시간 동안 침묵이 있음을 본다. 하박국 2장 20절은 주께서 그의 거룩한 성전에 계실 때 온 땅은 잠잠할 것을 말한다.

또 그가 일곱째 인을 떼셨을 때, 하늘에서는 약 반 시간 동안 침묵이 있었다.
요한계시록 8:1.

일곱째 인이 떼어지는 것은 삼십 일의 기간에 이루어진다. 이는 그것이 마지막 인이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31일에 에스겔의 뼈들이 부활의 과정에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사십 일 동안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그 날짜는 2020년 7월 18일의 실망 이후 1,260일의 끝을 표시하였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우리가 성전을 측량하되, 뜰은 제외하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뜰의 기간은 흠어짐이 끝날 때 종결되는데, 요한이 뜰인 이방인들에게 1,260일이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알려 주기 때문이다. 측량할 때에는 그 역사는 제외되어야 한다.

밀러가 깨어나 먼지털이개를 든 사람을 볼 때, 방은 비어 있고, 목소리를 높일 때에도 밀러는 여전히 광야에 있다. 부활의 역사로부터 일요일 법령 바로 직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14만 4천의 성전을 일으키고 계시며, 그것은 그분께서 1798년부터 1844년에 이르기까지의 46년 동안 행하신 것과 같다.

그분이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그분은 특히 그 삼십 일 동안 자기의 성전에서 사역하고 계신다. 그때, 그분이 그의 제사장들—밀러주의자 설교자 삼백 명—을 가르치시거나, 그의 군대—기드온의 삼백 명—을 가르치시거나, 혹은 1843년 도표 삼백 장을 간행하실 동안, 천사들은 삼십 분 동안 침묵을 지킨다. 그리고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무교절의 끝으로부터 나팔의 기별에 이르기까지의 삼십 일 동안 행하신다. 그분은 밀러의 방 바닥을 쓸고 계시지만, 그것은 그분의 바닥이므로, 밀러의 방은 그분의 성전이다. 그분은 십사만 사천 가운데 들 후보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죄들을 도말하거나 또는 그 이름들을 말소하는 사역을 마무리하고 계신다.

승천 5일 전, 심판 10일 전에 임하는 나팔의 기별은 시금석이다. 하늘이 고요한 삼십 분, 또는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을 가르치시는 삼십 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나팔·승천·심판의 세 단계를 거치는 가운데 인침이 이루어질 때 이미 두 부류를 형성하였다. 이는 명백하다.

나팔로 그 기별을 울려야 할 시점에 이르러 그 기별을 울리기를 거부한다면—그대는 실패하는 것이다.

‘나팔, 승천, 심판’의 세 단계는, 역사의 시작에서 하나의 이정표가 ‘죽음, 장사, 부활’로 표상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세 단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정표이다. 마지막의 세 단계 시험은 오순절의 일요일 법령보다 닷새 앞서는 리트머스 시험이다.

부활 후 닷새가 지나 무교절의 끝이 도래하고, 그 거룩한 성회가 2024년의 첫 번째이자 근본적인 시험을 표징한다. 당신은 하늘의 떡을 먹겠는가, 아니면 인간적 추론의 떡을 먹겠는가? 그 시험은 2024년에 도래했으며, 아담과 하와, 니므롯, 아론, 여로보암, 고라와 그의 반역자들, 밀러주의 역사 속의 개신교도들, 존 하비 켈로그의 알파 반역, 1888년의 반역, 그리고 물론 9/11의 반역에 이르는 근본적 반역들에 의해 예표되어 왔다. 가인의 근본적 반역은 당신의 형제에 대한 질시라는 문제를 드러내며, 이는 근본적 반역들의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근본적 반역에 대한 모든 예증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지만, 그중 일부—예컨대 1888년의 반역자들과 고라의 반역자들—에서는 택정된 사자가 시험의 일부를 이룬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다니엘 11장 14절에서 환상을 확립하는 자가 로마라고 밀러가 비정한 것을 거부하는 것은, 기별과 사자 모두를 거부하는 것이다. 이 시험은 근본적이다. 이는 14절의 약탈자들을 로마로 비정한 이가 밀러 부(父)만이 아니라 밀러의 아들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2023년 12월 31일의 부활로부터 닷새 후에, 밀러의 예비적 교훈 사역은 요한의 뒤를 이은 이에게 인계되었다. 30일 동안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예배자들에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특별한 교훈을 주실 것이었다. 그 준비는 나팔절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하여 80명의 제사장단을 예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 삼십 일의 준비는 처음의 기초적인 첫 시험과 마지막의 두 번째 성전 시험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성전 시험은 나팔이 불리기 전에 끝나며, 그러므로 이 세부는 그리스도께서 보석들을 궤 속에 던져 넣으실 때 밀러의 꿈에서 표상되어 있다. 그분께서 이 일을 행하신 후에야 비로소 밀러에게 "와서 보라"고 부르신다. 기치가 일요일 법령에 앞서 높이 들려지는 때는 나팔의 경고로부터 심판으로의 승천에 이르기까지이다. 밀러가 "와서 보라"는 부르심을 받기 전에 보석들은 모두 성전에 있으며, 두 증인이 구름 가운데로 들어 올려질 때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목도한다.

그들이 2020년에 빛나간 이슬람의 공격에 대한 예측은, 스노의 참된 한밤중의 외침이 그러하였듯, 교정된 후에 반복될 것이다. 밀러는 자신이 한밤중의 외침이라 규정한 한 가지 이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새뮤얼 스노가 밀러의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를 교정하였고, 이 때문에 밀러 운동의 역사에서 스노의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는 ‘참된’ 한밤중의 외침 메시지라 불린다. 한밤중의 외침의 메시지는 교정되었고, 그 교정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부여받은 메시지이다.

실망한 자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지체의 때에 있음을 알고, 이상의 성취를 인내로 기다려야 함을 깨달았다. 1843년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보게 했던 바로 그 동일한 증거가, 1844년에는 그분을 기대하게 했다. 초기 문집, 247.

그 현상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기간의 말미에 일어났고, 또한 그 초두에도 일어났다. 조사리아 리치는 1840년에 이슬람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그는 1838년에 자신의 예언을 공적 기록으로 남겼고, 1840년 8월 11일 열흘 전에 그것을 수정하였다. 수정된 예언의 성취는 첫째 천사의 기별에 권능을 부여하였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수정된 한밤중의 외침 기별에 의해 권능을 받았다. 한 역사 속에 알파 증인과 오메가 증인이라는 두 증인이 있다. 그 둘은 함께, 이전 기별의 수정에 근거한 기별의 권능 부여를 증거한다.

알파는 이슬람에 관한 예언을 가리키고 오메가는 닫힌 문에 관한 예언을 가리킨다. '줄 위에 줄'의 원칙에 따르면, 1840년의 이슬람과 1844년의 닫힌 문은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이 이슬람과 닫힌 문임을 규정한다. 기별의 시작에서 이슬람은 그리스도의 개선 입성에서와 같이 풀려난다. 그 시점에 열 처녀의 비유에서 문이 닫히며, 하나님의 집의 심판에 대하여도 문이 닫힌다. 기별의 결말에 이르러서는 미국에 문이 닫힐 때 이슬람이 다시 일격을 가한다.

레위기 23장이 제시하는 그 선이 시작에서는 유월절의 세 단계를, 끝에서는 제사장들의 세 단계를 식별하고 있음을 보는 것은 중요하다. 제사장들은 일요일 법령의 때에 제물로서 들어 올려지지만, 그 사건 이전에 정결케 된다. 그들이 들어 올려질 때 그들은 기치가 되며, 그 선의 시작에서의 세 단계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들어 올려지셨을 때 그분은 온 세상을 자기에게로 이끄셨다. 십사만 사천의 들어 올려짐은 그리스도의 들어 올려짐으로 시작된 그 선의 종결이다. 시작과 끝 모두에서 세 단계로 이루어진 하나의 이정표가 확인된다.

처음에는 세 단계가 있고 그 뒤에 다섯 날이 뒤따르며, 끝에도 세 단계가 있고 그 뒤에 다섯 날이 뒤따른다. 그 시점부터 이야기는 큰 무리에 관한 것이다. 이는 제사장직이 십사만 사천의 기치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장막절의 칠 일은 이방인들을 위한 기간이다. 만일 일요일 법령에서 시작하는 이방인의 때를 제외하고, 2023년에 끝난 삼 일 반을 제외한다면, 2023년 12월 31일부터 임박한 일요일 법령에 이르기까지의 오순절기의 쉰 날 안에 십사만 사천의 성전이 표상되어 있다.

동정자들을 위하여 부활로부터 오 일이 주어지고, 그 뒤를 이어 제사장들을 위하여 삼십 일이 주어진다. 그런 다음 동정자들의 나팔의 기별이 오 일간 선포되며, 사십 일이 끝날 때 그들의 승천으로 종결되고, 그 뒤에는 심판에 이르는 오 일이 이어지며, 다시 그 뒤에는 일요일 법령에 이르는 오 일이 이어진다. 동정자들을 상징하는 수 '5'는 동정자이자 또한 제사장인 십사만 사천의 발자취를 제시한다.

삼십 일간의 교훈 기간 동안 마지막, 곧 일곱째 인이 떼어지며, 바로 그 기간에 밀리는 보석들이 회복되는 것을 본다. '와서 보라'는 처음 네 인에 바탕을 둔 상징이므로, 일곱째 인이 떼어졌을 때 밀리는 '와서 보라'는 말을 들었으나, 하늘의 천사들은 모두 침묵 가운데 지켜보기만 한다. 밀리의 꿈은 14만 4천인 보석들의 인침을 가리키는 동시에, 한밤중의 외침의 기별인 보석들도 가리킨다. 그 기별은 인침을 성취하게 하는 능력을 처녀들에게 부여하며,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은 전령들과 기별 둘 다를 주관하시는 분을 가리킨다.

2024년은 기초 시험을 표상하며, 이제 2026년에 성전 시험이 도래하였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삼십 일의 기간 가운데 있으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이다.

메시지와 그 사자를 식별하는 일은, 로마가 이성을 확립함으로써 표상된 기초적 시험의 한 요소였으며, 또한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의 한 요소이기도 하다.

유다 왕 아사 제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올라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하였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이십이 년 동안 통치하였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욱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마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악을 따라 행하는 것쯤을 가벼운 일로 여긴 듯, 시돈 사람들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고, 아합은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그보다 앞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격노하게 하였다. 그의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에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아들 세굽을 잃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주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신 말씀대로였다. 길르앗 거민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내가 그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여러 해 동안 이슬도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열왕기상 16:29-17:1

아합과 관련된 숫자들은 본문의 문맥에 기여한다. '삼십팔'은 '일어섬'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제삼십팔년에 '일어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내가 이르되 "이제 일어나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였고,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다.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의 기간은 삼십팔 년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전쟁할 만한 자들의 그 세대가 진 중에서 모두 소멸되기까지였다. 신명기 2:13, 14.

예수께서 그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서른여덟 살 된 불구의 남자를 고치셨다.

그곳에 서른여덟 해 동안 병을 앓아 온 어떤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오랜 세월 그러한 상태에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고,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이가 나보다 먼저 내려갑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음을 얻어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라. 그 날은 안식일이더라. 요한복음 5:5-9.

요시야 리치는 1838년에 예측을 제시하였고, 1840년에 그것을 정교화하였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언급한 제38년은 또한 제40년이기도 했다. 요시야 리치의 두 단계 과정은 그의 동명인 요시야 왕의 두 단계 부흥과 상응하였다. 38과 40이라는 수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들려 올라감을 표상하며, 이는 두 증인이 구름 속으로 들려 올라갈 때 일어나는 바로 그 일이다.

리치의 경우, 들어 올림은 둘째 화의 이슬람에 관한 기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표시되는 들어 올림은 이슬람의 나팔 기별 이후에 온다. 나팔, 승천, 심판이라는 이정표 가운데 처음 두 단계인 나팔과 승천은 리치로 예표되었고, 그의 두 단계는 다시 요시야 왕의 두 단계로 전개된 부흥과 개혁으로 예표되었다. 신명기에서는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이 주어졌고, 일요일 법령 때 기치를 들어 올리는

것은 동일한 약속이다.

아함은 이십이 년 동안 통치하였으니, 따라서 그는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는 기간, 곧 나팔 기별에 앞서는 삼십 일의 기간 동안 통치한다. 아함은 트럼프이며, 그는 매우 가까운 장래에 이세벨과 결혼할 것이다. 트럼프의 기간에 비의 기별을 가진 이는 오직 엘리야뿐이다. 이 사실은 근본적인데, 이는 십사만 사천의 운동이 '줄 위에 줄'이라는 방법론의 운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방법론은, 십사만 사천의 개혁 운동이 거룩한 역사의 모든 개혁 운동에 의해 예표되어 왔다는 근본적 진리에 기초하고 있다. 그 모든 운동에서 지도자들은 시험 과정의 일부였다. 항상 그러하였다.

아함은 여로보암 이후 일곱째 왕이며, 우리는 아함이 일요일 법령 위기의 시기에 국가 권력을 가리킨다는 것을 거듭 입증해 왔다. 우리는 또한 라오디게아 상태에 있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1863년에 여리고를 재건하였고, 그 결과 화이트 가정이 만아들과 막내아들을 잃게 되었으며, 그것이 일요일 법령 때의 여리고를 예표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1863년은 일요일 법령을 예표한다.

해당 본문은 그 기간을 일백사십사천의 인침의 시기로 지시하는 상징들로 가득하며, 그 기간에 하박국의 1843년 도표에 제시된 한 진리에 대한 밀러의 이해를 거절하는 것은 근본적 반역으로, 이는 '온 회중이 거룩하다'고 주장한 고라의 반역자들과 1888년의 반역자들과 동일한 구실 아래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자를 경시하는 것을 포함한다.

지금 우리는 하늘의 창들이 경륜의 문과 함께 열리는 때 성전의 시험 가운데 있다. 그 경륜의 문은 제사장들이 라오디게아에서 빌라델비아로 옮겨가는 전환을 표징한다. 또한 그것은 밀러의 꿈의 위조된 보석들과 참된 보석들의 분리를 표징한다. 그 창들은 저주인지 복인지를 드러낸다. 말라기 3장은 돌아옴을 시험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 밀러의 꿈은 제사장직과 메시지의 회복을 모두 강조한다. 요한계시록 19장은 이슬람에 관한 나팔 기별의 한 예언이 성취될 때 일으켜 세워지는 주의 군대를 지목한다.

나팔 기별의 시금석에 앞서 있는 시험은 둘째이며, 그것은 성전 시험이다. 밀러의 꿈은 이중성을 산출하는데, 이는 항상 둘째 시험과 연관된다. 이는 밀러의 꿈에서 보석들이 기별이자 기별자들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성전 시험은 늦은비의 줄 위에 줄 방법론의 적용을 포함한다. 이는 제사장들이 여러 예언의 선들 속에서 성전을 보고, 기별들을 상응시키도록 요구한다.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의 더 큰 보석상자는 십사만 사천의 성전이며, 말라기의 창고도 그와 동일하다. 성전 기구의 중심은 언약궤이며, 덮개하는 그룹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바라봄으로써 모든 거룩한 존재들의 초점이 거기에 있음을 강조한다. 이 역사 속의 거룩한 자들은 성전을 바라보고 언약궤 안을 응시해야 한다.

십사만 사천의 성전은 레위기 23장의 주제이며, 화잇 자매가 '오순절의 시기'라 부르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때에 성취된 하나의 역사적 선을 제시한다. 부활에서 오순절까지, 혹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일요일법령에 이르기까지, 레위기 23장의 예언적 선은 십사만 사천의 성전을 표상한다. 그 역사는 세 단계로 된 이정표와 그 뒤를 잇는 닷새로 시작하며, 또한 세 단계로 된 이정표와 그 뒤를 잇는 닷새로 끝난다. 알파의 역사와 오메가의 역사 사이의 한가운데에는 제사장들을 인치는 삼십 일이 있다. 그 전체의 선은 제칠일 안식일로 시작하여 일곱째 해의 안식년으로 끝난다. 이 수준에서 십사만 사천의 성전은 새롭게 된 땅으로 여덟 영혼을 실어 나를 방주이며, 또한 두 천사가 그 위를 덮고

있는 언약궤이다. 이는 오순절의 시기로 표상된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직의 성전을 두 안식일이 그림자로서 드리우는 것과 같다.

레위기 23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시작되어 오십 일 뒤 오순절 날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오순절기의 최종적 현현 동안의 십사만 사천의 제사장 직분에 관하여 말한다. 오순절기는 레위기 23장의 처음 22절을 마지막 22절과 대응시키면 성립된다. 윌리엄 밀러의 꿈은 하나님의 말씀의 보석들이 메시지이자 사자들임을 밝힌다.

나는 경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들을 받아 왔다. 나는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 경험해 왔다. 그 천사들은 하늘 한가운데를 날며 온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고, 이 땅 역사의 마지막 날들에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묘사되어 있다. 아무도 이 천사들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이는 그들이 하늘의 우주와 조화를 이루며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이 그 순서대로 이 세 기별을 선포한다. Life Sketches, 429.

천사들은 그 천사가 표상하는 기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때가 촉박하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에 전해져야 할 기별들이다. 우리는 세 천사의 음성을 문자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이 천사들은 이 땅 위에서 이 기별들을 전하게 될 한 백성을 표상한다.

"요한은 이렇게 보았다. '큰 권세를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이 밝아졌다.' 요한계시록 18:1. 그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음성이다." 1888년 자료, 926.

천사들은, 그 천사들이 상징하는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윌리엄 밀러는 다양한 예언적 적용에서 상징된다. 그러한 적용들 가운데 하나는, 그가 선포하도록 인도받은 최초와 최후의 기간 예언에 의해 밀러가 상징된다는 점이다. 1798년에 끝난 "일곱 때", 곧 2,520년은 밀러의 알파 발견이었고, 1844년 10월 22일 2,300 주야의 끝에 이루어진 성소 정결은 밀러의 오메가 발견이었다. 밀러주의의 역사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로 대표되며, 비록 그것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역사였으나, 그 역사는 그 역사의 사자의 이름을 따라 불린다. 밀러주의의 역사는 밀러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한 "음성"이었음을 밝히며, 첫째 천사는 1844년 10월 22일에 심판의 시작을 선포하였고, 또한 첫째 천사는 이스라엘 왕국의 "일곱 때" 흩어짐이 종결될 때인 1798년에, 곧 종말의 때에 임하였다. 밀러는 2,520년의 예언과 2,300년의 예언 둘 다의 상징이다.

1798년의 첫 번째 이정표는 2,300년 기간이 1844년 10월 22일에 끝날 때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 후 주께서는 일곱째 날 안식일의 빛을 밝히셨고, 그분의 뜻은 그 사업을 마치시는 것이었으므로 1856년에 일곱 때에 관한 더한 빛을 여시려 하셨으나, 믿음 대신 반역이 드러났다. 일곱 때는 밀러주의 역사에서 알파요, 이천삼백은 오메가이다.

일곱 때는 안식년으로 표상되고, 2,300은 제칠일 안식일로 표상된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는 1798년과 1844년으로 표상되며, 1798년은 일곱 때를, 1844년은 2,300년을

표상한다. 그 두 안식일은 레위기 23장이 제시하는 역사에서 양쪽 경계를 이룬다. 그 두 안식일은 하나의 기별을 이루는 두 기별을 표상한다. 그 두 기별은 밀러주의자들을 표상하는데, 이는 그 기별을 선포하는 백성이 그 기별을 상징하는 천사들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1798년에 첫째 천사가 도래하였고, 1844년에 셋째 천사가 도래하였다.

레위기 23장에는 일곱 절기와 일곱 성회가 있으나, 모든 절기가 성회인 것은 아니며 모든 성회가 절기인 것도 아니다. 모든 절기들은 맨 앞의 성회와 맨 끝의 성회 사이에 위치하며, 그 처음은 제칠일 안식일이고 그 마지막은 제칠년 안식년이다. 절기의 역사는 윌리엄 밀러와 밀러주의자들을 대표하는 두 안식일로 그 시작과 끝이 한정되어 있다.

레위기 23장에서 처음 스물두 절과 마지막 스물두 절을 결합할 때 오순절 절기가 확인된다. 그 구절들을 서로 맞대어 수립되는 구조는 전적으로 신적이다. 그 구조의 오순절 절기는 세 천사의 세 단계를 분명히 보여 준다. 그것은 "진리"의 서명을 지닌다.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의 서명을 지닌다. 그것은 팔모니의 서명을 지닌다. 그것은 연구자를 바로 지성소의 심장부로 인도한다. 그것은 십사만 사천의 성전을 식별한다. 그것은 새롭게 된 땅에 이르기까지 확장된다.

레위기 23장의 이 진리는, 리트머스 시험과 세 번째 시험에 앞서서 성전 시험과 관련하여 이제 봉인이 풀리고 있다. 셋째 천사는 1844년에 임하였고, 이어 9/11에 다시, 또 2023년에 다시 임하였다. 셋째 천사가 1844년에 임했을 때, 신실한 자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다. 레위기 23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며 성전 시험의 한 요소를 표상한다. 요한은 성전을, 또한 그 안의 경배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밀러의 보석함은 성전이고, 그 안의 보석들은 그 성전 안의 예배자들이다. 말라기의 창고는 성전이며, 십일조는 그 성전 안의 예배자들이다. 레위기 23장의 '줄 위에 줄' 식 적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오순절 절기는 십사만 사천의 성전을 나타낸다. 더 직접적으로는, 덮개를 드리우는 그룹들이 십계명과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금 향아리에 담긴 만나를 굽어보는 언약궤를 묘사한다.

덮는 그룹들은 천사들이며, 천사는 기별과 그 기별의 사자를 대표한다. 레위기 23장의 알파 기별은 제칠일 안식일이고, 오메가 기별은 제칠년의 안식년이다. 이 둘은 모두 기별이며, 또한 윌리엄 밀러와 밀러주의자들의 알파와 오메가 기별이기도 하여, 1798년에 '일곱 때'가 성취되어 제칠년 안식년의 상징이 되었고, 1844년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지성소로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그들이 제칠일 안식일을 발견하였다. 그 둘은 레위기 23장에서 첫째와 마지막 성회이며, 오순절 절기는 그 둘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이는 두 덮는 그룹 사이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던 것과 같다.

성전은 측량되어야 하며, 그에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뜰을 제외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요일 법령 때 하나님의 집에 대한 심판이 종결되고,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시작된다. 이방인의 때는 1,260년의 끝인 1798년에 끝났고, 삼 일 반의 끝에(1,260을 상징하는) 요한은 그 뜰을 제외해야 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 하나가 주어졌고, 그 천사가 서서 이르되,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제외하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니, 그들이 거룩한 도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1:1, 2.

그 뜰은 남겨 두어야 했으니, 이는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고, 그들이 삼 일 반, 또는 마흔두 달 동안 그것을 짓밟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질 것이며, 모든 민족 가운데로 사로잡혀 갈 것이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힐 것이다. 누가복음 21:24.

이방인의 때는 다니엘서의 봉인이 풀린 1798년에 성취되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낮은 담이 바깥뜰을 그 거룩한 건물의 다른 모든 구역과 구분하고 있었다. 이 담에는 여러 언어로 된 비문이 새겨져 있어, 유대인 외에는 누구도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만일 어떤 이방인이 감히 내부 구역에 들어갔다면, 그는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되었고, 그 대가를 목숨으로 치렀을 것이다. 그러나 성전과 그 봉사의 제정자이신 예수께서는 인간적 동정의 유대로 이방인들을 예수께로 이끄셨고, 그의 신적 은혜로 유대인들이 거절한 구원을 그들에게 베푸셨다. 시대의 소망, 194쪽.

2023년 12월 31일로,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으로부터의 예언적 삼일반이 종결되었다. 그 삼년 반은 그때 예언적 기별이 봉함이 해제될 것과, 이방인의 때가 성취되어 더 이상 성전과 그 안의 경배자들을 측량하는 일에 포함되지 않게 되었음을 지시한다. 오순절기에서는 주일법이 오순절 날이었고, 그때 심판이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다. 일백사십사천의 성전을 측량할 때 이방인의 때를 제외하고 측량하면, 2023년 12월 31일부터 주일법까지의 기간이 성전에 해당함을 발견한다.

성전에 대한 증언은 그것이 두 단계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먼저 기초가 놓이고, 그다음에는 버린 바 되었던 기초석이 기이하게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될 때 성전이 완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기초는 첫째 칙령의 역사에서 고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놓였고, 성전은 둘째 칙령의 역사에서, 그러나 셋째 칙령 이전에 완성되었다. 기초의 시험은 2024년에 일어났고 우리는 지금 성전의 시험 가운데 있다. 그 성전의 시험은 세 번째이자 리트머스 시험에서 끝나며, 그 성전의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전을 측량할 것을 요구한다.

레위기 23장의 성전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일요일법에 이를 때까지 세워지며, 그 예언적 역사 안에는 예언의 봉함이 풀릴 때마다 항상 일어나는 세 가지 시험이 표상되어 있다. 그 셋 중 마지막은 리트머스 시험으로, 엑시터 캠프미팅으로 표상되었다. 그 집회에서 각자는 스노 장로가 참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을 두 차례 전한 천막 집회에 참석하였거나, 아니면 워터타운 천막에서 열린 감정적이고 불균형한 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가 끝나자 참된 한밤중 외침의 기별은 해일처럼 퍼져 나갔다. 엑시터는 리트머스 시험이었고, 그 리트머스 시험은 인침을 표상한다.

엑서터 야영 집회는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으로의 개선 입성으로 예표되었고, 예수께서 타신 나귀를 나사로가 이끌었다. 나사로의 죽음은 2020년 7월 18일의 실망이었으나, 그는 또한 그리스도의 절정의 기적이자 그의 신성의 '인'이었다.

그리스도께서 병상 곁에 계셨더라면,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사탄이 그에게 아무 권세도 행사하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생명 주시는 이의 임재 앞에서는 죽음이 나사로를 향해 그 화살을 겨눌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오시지 않은 채 머물러 계셨다. 그분은 원수가 그의 권세를 행사하도록 허용하셨으니, 이는 그를 정복된 원수로서 물리치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나사로가 죽음의 지배 아래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셨고, 고통하는 자매들은 그들의 오라비가 무덤에 안치되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죽은 오라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구속주에 대한 믿음이 심하게 시험당하리라는 것을 아셨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그들이 지금 통과하는 그 투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이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빛날 것을 아셨다. 그분은 그들이 견뎌낸 모든 애통의 고통을 함께 감내하셨다. 그분이 지체하셨다고 해서 그들을 덜 사랑하신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분은 그들을 위하여, 나사로를 위하여, 그분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그분의 제자들을 위하여, 얻어야 할 승리가 있음을 아셨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더듬어 찾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큰 낙심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다. 그들은 자기 길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감사함으로 돌아보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를 건져내실 줄 아시나니,' 베드로후서 2장 9절. 그분은 모든 유혹과 모든 시련에서 그들을 이끌어 내시어 더욱 굳건한 믿음과 더 풍성한 경험을 얻게 하실 것이다.

나사로에게 오시기를 지체하신 데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자비의 목적이 있으셨다. 그분은 지체하셨다. 이는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완고하고 믿지 않는 백성에게 그분이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또 하나의 증거로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이스라엘 집의 가난하고 방황하는 양들인 그 백성에 대한 모든 희망을 버리기를 내키지 않으셨다. 그들의 회개하지 않음 때문에 그분의 마음은 찢어지고 있었다. 그분은 자비로,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곧 회복자이심을 보여 주는 증거를 그들에게 한 번 더 주고자 하셨다. 이는 제사장들이 곡해할 수 없는 증거가 되어야 했다. 이것이 그분이 베다니로 가시기를 지체하신 이유였다. 이 절정의 기적, 곧 나사로의 부활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신성에 대한 주장 위에 하나님의 인을 찍어 입증하는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528, 529.

개선 입성은 그리스도께서 타실 나귀의 매임을 푸는 일로 시작되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감람산의 벳바게에 왔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여 있는 나귀와 그와 함께 있는 어린 나귀를 찾으리니, 그것들을 풀어 내게로 이끌어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말하거든, 주께서 그것들이 필요하시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곧 그것들을 보내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온유하여 나귀를 타시되, 나귀의 새끼 곧 어린 나귀를 타셨도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마태복음 21:1-6.

한밤중의 외침 기별은 첫 번째 실망의 시기에 임한 둘째 천사의 기별과 결합되었다. 그리스도 당시 그 실망은 나사로의 죽음이었고, 밀러주의자들의 경우에는 1843년에 대한

예언이 실패로 드러난 일이었는데, 그것은 1844년 4월 19일에 일어났다. 이 두 실망은 모두 2020년 7월 18일을 표상한다.

레위기 23장이 묘사하는 오순절기에는 리트머스 시험이 나팔절,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고 대속죄일이라는 삼중의 이정표로 제시된다. 그 세 단계는 기초와 성전이라는 처음 두 시험과 관련하여 그 리트머스 시험을 나타낸다. 그 세 단계는 오순절의 일요일 법령에 앞서 5일 전에 일어나며, 십사만 사천을 기치로 높이 드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이 그 리트머스 시험을 통과하면 높이 들림을 받고, 통과하지 못하면 밀러의 꿈의 창문 밖으로 날려 버려진다.

인침의 세 번째 단계는 대속죄일이며, 그것은 죄의 도말을 표상한다. 두 번째 단계는 말라기서의 레위인들의 제물을 봉헌하는 것이며, 첫 번째 단계는 나팔 기별이다. 1844년 이래로 인류는 일곱째 나팔이 울리는 역사의 시기를 살아오고 있다. 일곱째 나팔의 외적 기별은 이슬람의 셋째 화에 대한 기별이며, 일곱째 나팔의 내적 기별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십사만 사천의 인성과 결합시키시는 사역이다.

다음 글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선지자들의 기록 속에는, 비록 지극히 오래되었으나 우리에게 새 계시의 신선함과 권능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묘사되어 있다. 우리는 믿음으로, 지나간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더불어 행하신 역사에 관한 이 기록들이,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경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우리가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보존되어 왔음을 깨닫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의 때에 못지않게 중대한 시기에 살고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의 유대인들이 범했던 과오와 유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비본질적인 사안들의 중요성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점차 예배의 형식적 체계를 고안해 낸 유대 지도자들처럼, 지금도 일부 사람들은 이 세대에 적용되는 중대한 진리들을 도외시키고 새롭고 낯설며 현혹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위험에 처해 있다.

고상한 원칙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허탄한 사상을 추구하고 옹호하는 이들은 남을 가르치려 하기 전에 무엇이 진리인지 먼저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 사람이 만든 이론과 가정은 진리로서 추구되어서는 안 된다.

원칙에 강철같이 충실한 이들이 많으며, 이들은 도우심을 받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는 그들이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기 때문이다. '주여, 주의 백성을 아끼시고 주의 기쁨으로 욕되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기초 원칙들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우리 신앙의 위대한 기둥들은 그 위에 가해질 수 있는 모든 무게를 지탱할 것이다.

오류와 공상과 몽상의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리의 근본 원리들을 배워야 한다. 사도와 더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힘쓰시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하심을 너희에게 알렸을 때,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않았노라.' 주께서는 우리에게 높고 고상한 원칙들을 따르도록 부르신다.

진리, 곧 현재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바 그대로, 그 전부이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이 불필요한 일체의 것들과 신비주의로 기우는 모든 것들에서 자신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공상적이고 상상으로 지어 낸 교리들에 탐닉하라는 유혹을 받는 자들은 하늘의 진리라는 채석장에 갠을 깊이 파고, 받는 자에게 영생을 의미하는 그 보화를 확보하도록 하라. 말씀 안에는 가장 귀한 진리들이 있다. 이것들은 간절함으로 연구하는 자들이 발견할 것이다. 이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 탐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땅 위에 살고 있는 자들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때가 이르러니 그들은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귀가 가려워 스스로를 위하여 많은 스승들을 모을 것이며, 진리에서 귀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로 돌아가리라.'

바울이 건전한 교훈을 견디지 못할 자들에 관하여 예언하던 때에 내린 그 명령이 얼마나 중대하며, 얼마나 영혼을 격동시키는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산 자와 죽은 자를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의 나라에서 심판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훈으로 책망하고, 경책하고, 권면하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들은 의의 태양의 빛 가운데서 행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길을 부패시켜 그들의 구속주를 욕되게 하지 않는다. 하늘의 빛이 그들 위에 비친다. 이 땅 역사의 끝에 가까이 갈수록, 그리스도와 그분과 관련된 예언들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크게 증가한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 이는 그들이 그분의 아들과 연합해 있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비할 데 없이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그들은 그 중요성을 깨닫는다. 진리가 그들에게 펼쳐진다. 성육신의 교리는 은은한 광채로 빛난다. 그들은 성경이 모든 신비를 열고 모든 난제를 해결하는 열쇠임을 본다. 빛을 받아들이지도 빛 가운데 행하지도 않으려 했던 자들은 경건의 비밀을 깨닫지 못할 것이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주저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The Southern Watchman, 1905년 4월 4일.